

# 새시대 평양번영기에 또다시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

## 대평지구 살림집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결정한 살림집건설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대평지구 살림집 건설이 힘있게 힘있게 진행되는 시기에 수도 평양의 대평지구에 현대적인 살림집이 건설되고 있다.

모든것을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철저히 복종시켜나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국가적으로 튜레없이 방대한 과업들이 나가고 있는 속에서도 철거세대주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건설전선이 평양시교외에 펼쳐지고 대평지구 살림집건설이 당과 국가의 중대사로 강력히 추진되어 수도건설사에 자랑스럽게 한페이지가 새겨졌다.

다층, 고층살림집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학교와 진료소, 각종 봉사시설들을 그쁘려 갖춘 대평지구의 특색있는 새 건축군은 공화국인민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

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로동당의 은덕으로 사회주의문명이 융축된 인민의 새 거리, 보금자리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련이어 일떠서고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공화국에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며 대평지구 살림집 준공식이 2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 내각총리, 전현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훈 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새살림집에서 살게 될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추진되어온 대평지구 살림집건설이 완공되어 철거세대주민들이 새집에 입주하는 시각을 맞이하게 되

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훌륭한 살림집을 받아안은 주민들을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대평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 구역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분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주는 교과서적 실체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상불편을 하루빨리 가셔주시기 위해 중요당의 때마다 인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건설력량도 돌려주시였으며 최대비상방역기간에도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가도록 하시고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아쉬움도 없는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러 깊이 마음쓰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과 진정을 받들며 당결정을 기어이 관철할 충

성의 마음을 안고 완강한 공격적, 치열한 철야전을 벌인 건설자들의 견인불발의 투쟁과 성, 중앙기관, 련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대평지구에 인민의 리상이 구현된 건축군이 자랑스럽게 솟아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다하여 기어이 실현해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국가활동의 불변의 원칙이며 일관한 혁명방식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추진되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온 나라를 뚫어주는 새로운 건설혁명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문명에 인도하는 성스럽고 영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는 각 도건설력단의 지휘성원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를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문명한 도시로 꾸리며 지방건설, 농촌

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일군들이 조선로동당의 인민관을 깊이 새겨안고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도모하며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애써 노력하는 진정한 총부키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새집의 주민들모두가 오늘의 기쁨을 소중히 간직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맡은 일들을 잘해나가기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하면서 대평지구 살림집의 준공을 선포하였다.

참가자들은 인민이 반기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이루어야 할 당과 국가의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정하시고 인민의 행복의 별칭지들을 끝없이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에 넘쳐있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봉사시설들을 돌아보았다.

조선로동당의 다심한 은정이 습배인 살림집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평범한 근로대중을 새 문명의 향유자, 행복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와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에 이 땅위에 인민의 제일리익을 펼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며 부강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성실한 맘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새시대 평양번영기에 이룩된 대평지구의 전변은 위대한 당중앙의 손길아래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되고 인민의 만복이 세세년년 넘쳐나게 될 공화국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었다.

본사기자



# 빛과 어둠의 두 세상

최근 남강원도 춘천지역에서는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파쇼당국의 노동자탄압행에 항거하여 자기 몸에 불을 다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음날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이었다.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축하를 받아야 할 이날에 남조선에서는 노동자가 축하의 꽃다발이 아니라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절명하는 기막힌 일이 생겨난것이다.

사람이 자기 몸에 인화물을 끼었고 불을 단다는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얼마나 살기 힘들고 앞이 안보였으며, 사회와 《정권》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겠는가.

본인은 남조선과 같은 반인민적인 사회에서 반항 또는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가장 극렬한 투쟁방법의 하나이다.

남조선에서 본인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벌써 반세기전인 1970년 11월 13일 남조선의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은 석유를 끼었던 몸에 성냥불을

갓고 구호를 웨치면서 분신하였다.

《로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그는 열아홉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꿈인 재단사가 되었지만 불과 한달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혹한 노동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하루평균 14~15시간, 한달에 28일을 기계처럼 혹사당해야 했다.

전태일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평화시장》, 《동화시장》 등의 퍼복공작 노동자들로 《삼동천목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그 회장이 되어 노동자들을 계몽각성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왔다. 그러나 파쇼당국의 비호를 받는 기업주는 눈살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암흑의 사회에 항거하였던것이다.

1985년 8월 15일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건설노동자 투쟁일이 《8.15를 맞이하는 뜨거운 무등산이여!》라는 비호를 살포한 후 분신하였고 9월 17일에는 경원대학교 학생 송광영이 《학원안정법》반대와 광주학생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라고 웨치며 자기 몸에 불을 달았다.

1986년 4월 28일 서울대학교 학생 김세진, 리재호는 전방부대 입소거부 시위 도중 《반전, 반핵, 양키고흠》을 웨치며 몸에 불을 달았다.

그해 5월 20일에는 서울대학교 학생 리동수가 문익환목사의 강연회도중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등을 웨치며 분신하였다.

6월 26일에는 남조선주민 강상철이 민주화운동 탄압금지과 광주대학살 진상규명, 직선제개헌을 요구하며, 11월 5일에는 경성대학교 학생 진성일이 《건국대학교 통성사건 해명, 독재타도, 미제축출》을 요구하며, 1987년 3월 6일에는 호남대학교 학생 표정두가 《내각제 개헌반대, 장기집권 음모 분쇄, 광주사태 책임지라.》면서, 5월 17일에는 노동자 황보영국이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웨치면서 분신자결하는 등 남조선에서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와 당국의 악정에 항거하여 분신자결하는 현상이 해마다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왔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이다 못해 마지막 저항수단으로 분신을 택하고있는 남조선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

그 불길들은 암흑의 사회를 불살라버리려는 필사의 몸부림이었다. 파쇼살인 《정권》에 대한 화형식이였다.

그렇게 전태일이 쓰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피로써 쓴 분신의 역사, 항거의 력사가 어언 50여년이 흘렀지만 인간답게 살아보려는 남



조선인민들의 갈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들이 《개》나 《돼지》처럼 불려지고 짓밟히고있다.

이번에 건설노동자인 양희동을 죽음으로 내몬것도 노동자들의 삶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썩은 세상과 윤석열역도의 검찰특재 《정권》이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사대굴종과 반인민적인 정책에 매달리면서 노동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삶을 비랑갈에 내몰아왔다. 《로동개혁》을 한다면서 재벌들을 살찌우고 노동자들을 죽이는 개혁을 했고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여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불법》, 《독력》으로 몰아닥치는대로 탄압하였다.

양희동이 몸담고 일하던 건설로조와 건설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파업과 반 《정부》투쟁에 제일 앞장섰다고 하여 《건설독력》으로 매도하고 구속수사 등 탄압을 계속가며 양희동을 끝내 죽음으로 내몬것이다.

양희동은 몸에 불을 달면서 남긴 유서에 이렇게 썼다. 《로동자를 자기 앞길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로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로동자를 비롯한 근로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것은 비단 그만이나 남조선의 수백수천만 각계층이 수십년세월 바라고 피터지게 웨쳐온 삶의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것인가.

남조선은 구조적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몇몇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이고 대다수의 근로하는 인생들은 언제 가도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불우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는 썩어빠진 사회이다.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면서도 향유하는 권리는 빼앗기고 한갓 말하는 기계, 권력자의 치부의 수단으로 되어 뜯기우며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남조선말고도 이 행성에는 얼마나 많은가.

지구상에 국가가 생겨 수천년, 근로의 맘을 흘리는 인민은 언제나 정치의 관심밖에서 놓이고 학대당하고 버림받았다.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자리는 인민대중이 아니라 극소수의 특권계층, 지배계급이 독차지해왔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당시 세계인구의 1%에 해당하는 부호들이 69%의 재산을 합친것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재부를 가지고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극소수 부유층이 사회적부의 대다수를 독차지하고있다. 그들이 고급주택과 별장, 자가용비행기까지

가지고 거들먹거리고있을 때 수백수천만의 근로대중은 거리와 골목에서 굶어죽고 일어 죽고있는 형편이다. 부의부, 빈익빈의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참혹한 현실을 두고 미국의 언론들까지도 《한국에는 손살같이 늘어나는 재산이 있고 다른 국에는 끝없이 더해가는 빈곤이 놓여 있다.》고 개탄하였다.

이런 어두운 행성에서 유독 밝은 빛을 뿌리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참다운 인민의 나라 조선이다.

인민위권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이 땅위에 참다운 인민의 세상을 펼쳐주고 빛내주시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으로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을 따듯이 품에 안으시고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지난해 4월 평범한 근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편 보통강강안다락주택주공 준공식에 참가하시었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정의 눈물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시는 새집의 주민들에게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어가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역세게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가꾸어 가시는 황홀한 인민의 세상에서 2023년의 이해에는 화성지구 1만세대의 새집들이 광명이 펼쳐지고 인민을 위한 대규모건설장장이 또다시 건설되고있는가 하면 각지의 농촌들과 지방들에서도 새집들이소식이 련일 전해지고 령도자의 관심속에 로동자재육경기도 펼쳐져 온 나라가 날마다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우리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리상으로 그려보던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보니 당의 은덕에 어떻게 보답하였으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당이 제일이고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너무도 꿈만 같아 새집에 섰뜻 들어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농장의 모든 농장원들이 이렇게 한날한시

에 궁궐같은 새집을 받았습시다. 남너로소모두가 너무 기뻐 흥겨운 춤무를 떠날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많고 많아요 우리 나라에서처럼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술취하면 어떤 맨 대학에 간 동물들이나 사회의 여러 초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였습시다. 하지나 이번 체육경기에 참가하고나니 김철로동계급의 한 성원이 된 영예와 긍지가 가슴속에 짙 차오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제일 가까이에 나의 일터가 있고 나의 맘, 나의 랑심도 소중히 자리잡고있다고 생각하니 온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것만 같습니다.》

누구나 한복소리로 타놓는 이 격조와 고마움의 웨침. 근로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참다운 인민의 세상, 행복의 세상에서는 남너로소모두가 격정에 겨워 부르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가 날과 달을 이어 끝없이 울려져오고있다.

허성철

